

## 능력-성취 불일치 접근법의 문제점

- 첫째, 지능지수와 학습영역 즉,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셈하기 영역 간에 “심각한 혹은 현저한 불일치(severe discrepancy)”가 있어야 학습장애로 판별하는 “현저한 불일치”의 의미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학습장애 진단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둘째, 지능검사 점수에 따른 평균적인 학업성취수준을 설정하려면 지능점수와 학업성취 수준 간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가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 셋째, 지능검사 자체가 피험자의 언어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최근 표준화된 웨슬러 지능검사(K-WISC IV)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학습장애 아동의 경우 읽기장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문항 자체를 읽지 못한다면 지능지수는 읽기수행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사실 이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이외에도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점수를 자르는 것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점수를 자르는 것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삭제) 편의상 동의된 것이며, 교육청마다 다른 검사 점수를 적용하고 검사도구의 오류 통제가 불가하다.
- 또한 불일치 기준이 숫자 혹은 통계적으로만 나타내어 교육적 요구가 다른 아동을 가려내고 있는가 하는 타당성이 제기되며, 조기에 학습장애 진단이 어려워 조기중재를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이다.